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 자녀의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백 지 은

이 승 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 자녀의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실패공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상도 지역 중학생 640명(남: 351명, 여: 289명)의 자기보고식 설문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실패공포의 단순매개효과가 유의하였으며,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실패공포로 이어지는 이중매개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또는 실패공포를 증가시킴으로써 학업지연행동에 기여하였으며,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강한 중학생은 실패공포를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결국 학업지연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아버지의 경우와는 달리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학업지연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업지연행동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의의와 개입전략을 서술하였고,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심리적 통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실패공포, 학업지연행동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E-mail : slee1@ewha.ac.kr

“다음에 해야지” 라는 말은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말이다. 이는 어떤 사람에게는 상당히 적응적이고 합당한 ‘미룸’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는 역기능적인 ‘미룸’이 될 수 있다. 지금처럼 시간관리가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때에 후자에 해당하는 ‘미룸’은 일상생활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장면에서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일찍이 이러한 미루는 행위에 주목한 학자들은 이를 ‘지연행동 (procrastination)’으로 정의하고 주관적인 불편감을 경험할 때까지 일이나 결정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Burka & Yuen, 1983). 이러한 설명은 미루는 습관이나 시간 관리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행동, 정서적 요인을 모두 포함한다(Solomon & Rothblum, 1984). 실제로 지연행동은 직업, 대인관계, 학업수행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Hammer & Ferrari, 2002), 지속적인 지연행동은 절망감과 우울,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낮은 자존감을 가져오는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ck, Koons, & Milgrim, 2000). 즉, 지연행동의 만성화는 대인관계 문제와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연행동은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행동으로 고착되기 전에 다루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주로 대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예, 조이슬, 강영신, 2015; 한영숙, 2011; Chi, Zhao, Hou & Lin, 2012; Hammer & Ferrari, 2002). 따라서 발달적으로 더 이른 시기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연행동의 기제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데, 특히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제인

학업수행과 관련하여 학업지연행동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의 발달된 과학기술로 학습 환경은 점차 좋아지고 있으나 학업수행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생들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Milgram, Mey-Tal과 Levison(1998)이 설명한 것처럼 과제나 시험공부를 시작하지 않고 미루거나 끝내지 못하고 그로 인해 낮은 성취를 보이게 되는 것과 그에 대해 주관적 불편감을 느끼는 학업지연행동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학업관련 문제들을 겪는 학생들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학업지연행동은 어린 학생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며(최윤정, 2009)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고(Owens & Newbiggin, 1997) 성인이 되어서도 다양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남자 중학생 4명 중 1명이 학업지연행동을 하며 62.9%가 학업지연행동 극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함경애, 송부옥, 노진숙, 천성문, 2011). 이처럼 학업지연행동은 흔히 나타나며, 학생들은 그에 따르는 불편감과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요구에 부합한 적절한 개입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지연행동의 구체적 기제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연행동의 원인에는 개인 내적인 요인과 더불어 외적인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지연행동과 관련한 환경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스타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이 일반적 지연행동 또는

학업지연행동의 주요한 원인임이 보고되어 왔다. 예를 들어, 부모 각각의 권위주의적(authoritarian)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지연행동에 기여함을 보여준 연구들(예, 황임숙, 장성숙, 2010; Ferrari & Olivette, 1994)이나 부모의 통제적 양육이 11-14세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을 떨어뜨려서 학업지연행동을 증가시켰음을 보여준 연구(안은별, 김희화, 2016)가 있으며, 이와 반대로 부모의 수용과 관여, 심리적 자율성 허용이 학업지연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여준 연구(Zakeri, Esfahani, & Razmjooee, 2013)도 있다.

더 나아가 지연행동과 관련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주목한 연구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예, 백승순, 2014; 임성문, 박명희, 2010; 임소연, 2013), 심리적 통제란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기대에 맞추어 양육하기 위해 다양한 심리적 수단을 사용하여 자녀를 정서적, 사회적으로 교묘하게 조정하려는 훈육행동을 말한다(Barber, 1996). 심리적 통제를 사용하는 부모는 애정철회와 언어적 표현 억제, 과도한 기대와 요구, 감정적인 처벌, 거부와 무관심 등의 방법을 통해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 발달을 저해하며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게 만든다(Barber & Harmon, 2002; Vansteenkiste, Zhou, Lens, & Soenens, 2005). 이러한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이나 행동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안명희, 신희수, 2012). 특히 심리적 통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부모의 높은 기대나 비난은 지연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중고등학생의 지연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할 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심리적 반발심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도 지연행동을 예측하였다(백승순, 2014). 그러나 아직

까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학업지연행동에 기여하는 구체적 기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드문 상태이다.

한편, Russell과 Saebel(1997)은 가족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로 인해 부모-자녀 관계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한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련한 선행연구 대부분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만을 살펴보았거나(예, 김희영, 박성연, 2008; 마은애, 손은정, 2014; 안명희, 신희수, 2012), 부모를 구분하지 않고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예, 문경주, 오경자, 200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연구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서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취급한 것이 대부분이었다(예, 임성문, 박명희, 2010; 임소연, 2013).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성별을 구분한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Barber & Harmon, 2002)와 아버지가 더 많이 심리적 통제를 사용한다(Nelson & Crick, 2002)는 상반된 결과가 공존하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만이 청소년 자녀의 우울을 예측한다는 연구(Baron & MacGillivray, 1989)와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도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예측한다는 연구(Rogers, Buchanan & Winchell, 2003)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로 구분하여 학업지연행동과의 개별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학업지연행동과 관련된 개인 내적 요인인 부적응적 완벽주의

(Hamacheck, 1978)를 발달시키는 환경적 요인 이기도 하다. 심리적 통제는 특히 Hewitt과 Flett(1991)이 제안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세 가지 하위요인 중 타인이 부과한 비현실적인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인정과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되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린 아이의 경우 부모나 주변 성인으로부터 획득한 신념, 태도 등 외적인 동기를 내면화하여 행동으로 옮기게 되며, 이후 자율성 욕구의 증가와 함께 스스로 주체가 되어 다양한 가치와 태도를 자아에 적절히 통합하고 내면화하게 된다(Deci & Ryan, 2011). 하지만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사용하여 자녀의 자율성 발달을 저해하게 되는 경우, 자녀는 부모로부터 부과된 높은 수준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과도하고 경직된 수행 기준을 서서히 내면화하게 되고(Flett, Hewitt, Oliver, & McDonald, 2002),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심할수록 자녀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도 강해진다(김희영, 박성연, 2008; 임소연, 2010). 한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특히, 통제적 기대와 고등학생 자녀의 자존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으며(Abd-El-Fattah & Fakhroo, 2012), 부모 각각의 심리적 통제 모두 대학생 자녀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Reilly, Stey, & Lapsley, 2016).

한편,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고, 상관 연구가 주를 이룬다. 대표적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대학생들의 일반적 지연행동 뿐 아니라 학업지연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Flett, Blankstein, Hewitt, & Koledin, 1992), 자기지향이나 타인지향 완벽주의가 아

닌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만이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Saddler & Sacks, 1993). 국내 초등학생 연구에서도 적응적 완벽주의가 성취동기로 작용하여 지연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과 달리,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포함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지연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이석화, 2008). 그러나 최근 중국 대학생 연구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일반적 지연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Chi et al., 2012), 국내 고등학생 연구에서도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학업지연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황임숙, 장성숙, 2010). 한편, 국내 중학생 연구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수학과 영어에서의 학업지연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ong, Hwang, Noh, & Kim, 2014). 따라서 이를 종합했을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발달시키고, 궁극적으로 학업지연행동으로 이어지는 기제를 가정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외에도 수치심 부과, 애정철회, 수행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같은 방법을 통해 자녀에게 실패 결과 경험하게 될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고 이러한 두려움을 피하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실패공포를 발달시킨다(Birney, Burdick, & Teevan, 1969). 실패공포는 수치심이 예상되는 평가 상황에서 발생하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쉽게 위협을 느끼는 경향성과 관련이 있다(Birney et al., 1969; Conroy, Willow, & Metzler, 2002). 또한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로서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든 거리를 두는 애정철회(Chapman & Zahn-Waxler, 1982)는 자녀의 행동이 아닌 자녀 그 자체에 대한 처벌로 작용하게 되어 개인에

게 수치심을 부과하게 되며(Mapes, 2008) 공포, 불안 등의 강렬한 감정을 일으키게 된다(Sagar & Lavalley, 2010). 결과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실패공포를 발달시키는 주요한 환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Elliot & Thrash, 2004).

이러한 실패공포는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Milgram과 Tenne(2000)은 실패공포와 관련하여 3A, 즉, 평가-불안-회피(appraisal-anxiety-avoidance)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이나 과제가 위협적인지를 평가한 결과 자신의 자원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지 않지만, 반대의 경우 자신이 경험하게 될 혐오적 감정을 피하기 위해 지연행동을 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회피행동으로 감소된 불안이 지연행동을 부적으로 강화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Berger와 Freund(2015)의 연구에서 높은 실패공포가 실패를 피하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 학업지연행동을 유발한다고 보는 등 실패공포는 학업지연행동의 강력한 예측변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머니가 더 이른 시기에 자녀가 독립성과 성취행동을 보일 것을 기대하는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실패공포를 보인다는 Teevan과 McGhee(1972)의 연구결과는 부모의 과도한 기대가 성취압력으로 작용하게 되어 실패공포에 선행하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하게,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강한 청소년은 다른 사람이 부과한 기준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어떻게 평가받을지에 대해 두려워하며, 실패가 초래할 부모나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부정적 피드백이나 이들과의 관계 손상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지연행동을 하게 된다(Bong et al., 2014; Onwuegbuzie, 2000). 즉,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실패공포를 증가시키면서 학업지연행동 또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실패공포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사이를 완전 매개함을 보여주었던 한영숙(2011)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실패공포에 선행하는 관계를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실패공포와 학업지연행동 간의 부분적인 관련성은 밝혀진 바 있지만, 이들의 전체적인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경험적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업성취를 위해 효율적인 학습행동이 더욱 요구되기 시작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지연행동의 내·외적 요인이 되는 주요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각각 학업지연행동을 예측하는가?
2.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실패공포는 각각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3.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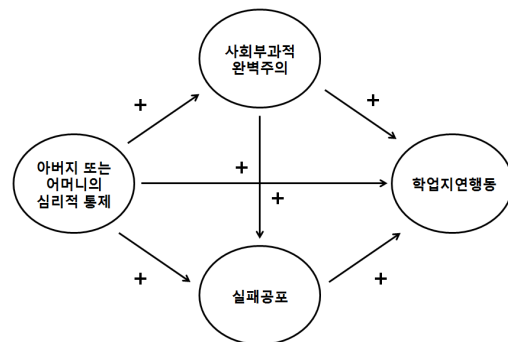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실패공포의 이중매개효과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상도 지역에 위치한 4개 중학교 1 -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응답요령은 담임교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내하였으며 총 800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각 척도에 대하여 한 개 이상의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160명(20%)의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640명($M=14.02$ 세, $SD=.84$)의 자료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351명(54.8%), 여학생 289명(45.2%)으로 남학생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은 중류가 83.6% (중상:23%, 중중:50.6%, 중하:10%)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측정도구

심리적 통제

Barber(1996)의 심리적 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 PCS-YSR)를 현지원(200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는 6개 하위요인(자기표현 제한, 감정 불인정, 비난, 죄책감 유발, 애정철회, 불안정한 감정기복)을 측정하는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통제를

가한다고 느낀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 척도를 아버지/어머니로 구분하여 평정케 하였다.

한편, 아버지, 어머니 심리적 통제 각각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인타당도를 재확인한 결과, 원칙도의 6개 요인구조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Hall, Snell과 Foust(1999)의 제안에 따라 요인분석을 먼저 수행하여 하위요인을 도출한 뒤, 각 요인별로 하나의 측정변인을 구성하였다(하위요인별 문항군집화; facet-representative parceling). 즉, 4요인 구조(자기표현제한, 감정불인정 및 죄책감유발, 비난, 애정철회 및 불안정한 감정기복)에 근거하여 측정변인 4개를 구성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하연과 박주희(2014)의 중학생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아버지의 경우 .90, 어머니의 경우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89로 나타났다. 각 측정변인별로는 아버지가 .81, .68, .84, .80이었으며 어머니가 .82, .68, .84, .80로 나타났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Hewitt과 Flett(1991)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F MPS)를 한기연(1993)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각 15문항씩, 45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하위척도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7점)'까지 7점 리커트 척도 상에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앞서 설명한 하위요인별 문항

군집화에 따라 측정변인 3개를 구성하였다. 이 때 Tabachnick과 Fidell(2001)의 제안에 따라, 요인부하량이 .30 이하로 낮게 나타난 문항 3번과 7번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설희정(2014)의 중학생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74였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 .78, 각 측정변인은 .73, .71, .68로 나타났다.

실패공포

Conroy 등(2002)이 제작하고 임성문(2006)이 번안한 실패공포 척도(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Revised: PFAI-R)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실패와 관련한 공포를 측정하는 5개 하위요인(수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것,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것, 중요한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실패공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인타당도를 재확인한 결과, 원척도의 요인구조와 달리 2요인 구조(1, 5요인 vs. 2, 3, 4요인)로 나타났다. 이에 하위요인별 군집화를 사용하여 측정변인 2개를 생성하였다. 이 때 단 하나의 역채점 문항이었던 12번 문항은 요인부하량이 낮게 나타나 제외하였다. 임지현(2015)의 중학생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5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 .95, 측정변인별로는 각각 92, .94로 나타났다.

학업지연행동

박재우(1998)가 번안하고 추상엽(2008)이 청소년용으로 수정, 보완한 Aitken(1982)의 지연

행동 척도(Aitken Procrastination Inventory: API)를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으로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지연행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단일차원인 학업지연행동 척도를 탐색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하위요인을 도출한 뒤 요인별로 하나의 측정변인을 구성하는 문항군집화 방식에 따라 2개의 측정변인을 생성하였다. 이 때 요인부하량이 낮게 나타났던 문항 8번과 19번은 제외하였다. 김은지와 김정섭(2012)의 중학생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은 .86, 측정변인별로는 .83, .80이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5년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약 2주간 실시되었다. 설문지 작성 시 후반부로 갈수록 피로효과에 의해 불성실한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고려하여 설문지는 측정도구의 제시 순서를 달리하여 두 개 유형으로 제작하였다. 설문 실시 전 각 중학교를 방문하여 교장의 허락을 구하였으며, 설문은 담임교사의 감독 하에 각 교실에서 약 20분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자료분석에는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전반적인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M-plu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한 후,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에 앞서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실패 공포, 학업지연행동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측정변인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Kline (2005)이 제안한 기준에 따르면 왜도의 절대값이 3 이상, 첨도의 절대값이 10 이상인 경우 정규성 가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값을 살펴 본 결과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인들의 점수범위와 평균 및 표준편차 (n=640)

	하위요인	가능한 점수범위	점수 범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아버지 심리적 통제	아버지 심리적 통제 1	4-16	4-16	7.00	2.32	.47	-.27
	아버지 심리적 통제 2	5-20	5-20	11.41	2.88	-.17	-.00
	아버지 심리적 통제 3	5-20	5-20	8.37	2.95	.76	.20
	아버지 심리적 통제 4	2-8	2-8	3.39	1.37	.78	.29
	아버지 심리적 통제	16-64	16-57	30.16	7.63	.31	-.05
어머니 심리적 통제	어머니 심리적 통제 1	4-16	4-16	7.04	2.41	.51	-.13
	어머니 심리적 통제 2	5-20	5-20	11.86	2.94	-.32	.03
	어머니 심리적 통제 3	5-20	5-20	8.61	3.12	.70	-.10
	어머니 심리적 통제 4	2-8	2-8	3.53	1.48	.75	.14
	어머니 심리적 통제	16-64	16-57	31.05	8.01	.26	-.14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1	4-28	4-28	14.57	4.48	-.08	.26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2	5-35	5-35	19.22	5.02	-.00	.64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3	4-28	4-28	15.25	3.78	-.06	1.2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13-91	13-91	49.04	10.08	.08	1.14
실패공포	실패공포 1	11-55	11-55	29.81	8.79	.00	-.05
	실패공포 2	13-65	13-65	31.54	9.54	.04	-.14
	실패공포	24-120	25-125	61.37	17.43	-.09	-.12
학업 지연행동	학업지연행동 1	10-50	10-50	27.63	6.37	-.03	.34
	학업지연행동 2	7-35	7-35	17.75	4.47	-.09	.50
	학업지연행동	17-85	17-85	45.38	9.68	-.32	.25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2), 거의 대부분의 측정변인들은 전반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각 변인의 총점을 사용한 상관분석 결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점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부: $r=.43, p<.01$, 모: $r=.48, p<.01$), 실패공포(부: $r=.40, p<.01$, 모: $r=.43, p<.01$), 학업지연행동(모두 $r=.29,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실패공포와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r=.62, p<.01$), 학업지연행동과는 중간 정도의 유의한 정적 상관($r=.33, p<.01$)을 보였다. 실패공포와 학업지연행동 간의 상관 또한 중간 정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45, p<.01$).

측정모형의 검정

구조모형의 분석에 앞서 측정변인들이 각각의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모형화에 기초하여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구분하여 두 개의 측정모형을 구성하였고, 분석 결과 아버지의 측정모형은 χ^2 값은 184.452($df=38, p<.001$), RMSEA는 .078(90% 신뢰구간= .067~.089), CFI는 .950, TLI는 .927, SRMR은 .045, 어머니의 측정모형은 χ^2 값은 190.600($df=38, p<.001$), RMSEA는 .079(90% 신뢰구간= .068~

.091), CFI는 .949, TLI는 .927, SRMR은 .045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RMSEA가 .05 이하면 적합도가 좋은 모형, .08이하면 적합도가 적절한 모형, .10 이상이면 적합도가 부적절하다고 본다(Browne & Cudeck, 1993). CFI와 TLI의 경우 .90 이상일 때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보며(Bentler, 1990), SRMR은 .08이하일 때 적절한 것으로 간주한다(Hu & Bentler, 1999). 이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측정변인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30이상이어야 한다는 Hair, Black, Babin과 Anderson(2010)의 기준에 모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개 측정모형 모두, 11개 측정변인으로 4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한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구조모형의 검정

아버지 심리적 통제에 대한 연구모형에서 χ^2 값은 184.452($df=38, p<.001$)으로 나타났으며 RMSEA는 .078(90% 신뢰구간= .067~.089), CFI는 .950, TLI는 .927, SRMR은 .045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심리적 통제에 대한 연구모형에서 χ^2 값은 190.600($df=38, p<.001$), RMSEA는 .079(90%의 신뢰구간에서 .068~.091), CFI는 .949, TLI는 .927, SRMR은 .045로 나타났다. 이는 두 연구모형 모두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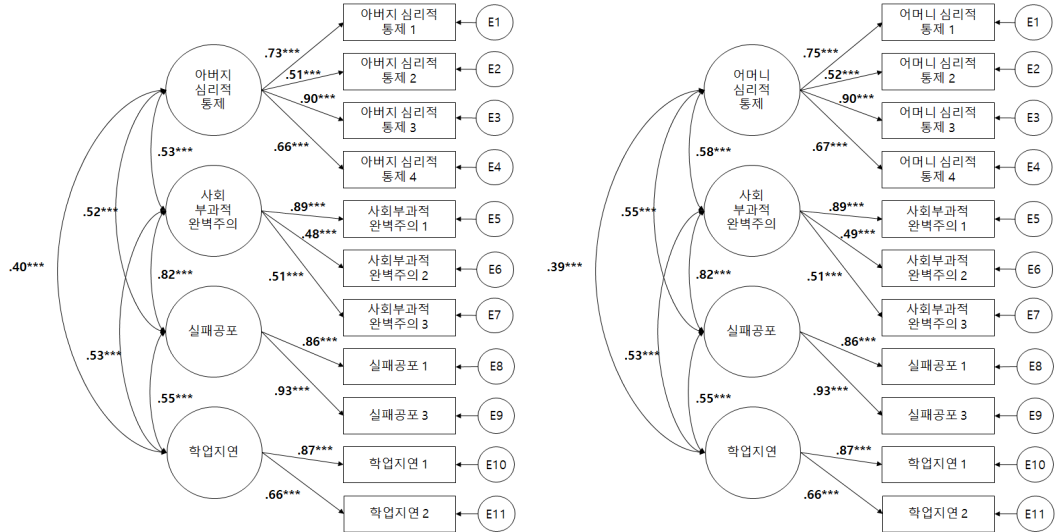
구조모형의 분석

아버지 또는 어머니 심리적 통제를 각각 독립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요인부하량을 그림 3과 표 3, 표 4에 제시하였다. 먼

표 2.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n=6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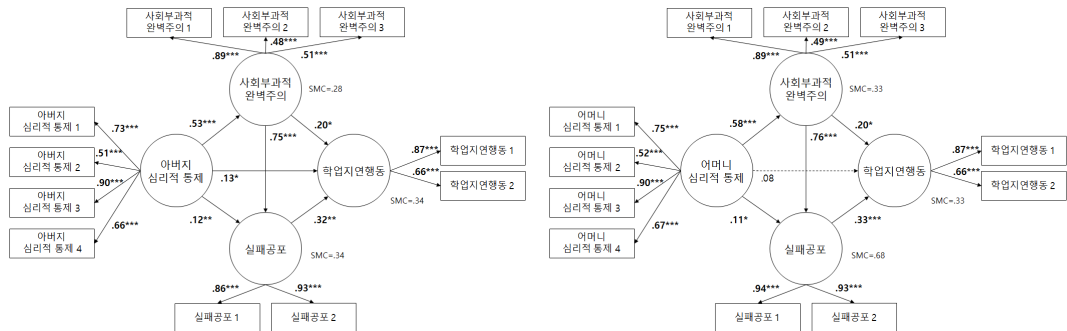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부 심리 통제 1	1																			
2. 부 심리 통제 2	.43**	1																		
3. 부 심리 통제 3	.67**	.47**	1																	
4. 부 심리 통제 4	.48**	.38**	.63**	1																
5. 부 심리 통제	.81**	.76**	.88**	.71**	1															
6. 모 심리 통제 1	.86**	.38**	.63**	.48**	.73**	1														
7. 모 심리 통제 2	.41**	.87**	.40**	.36**	.67**	.44**	1													
8. 모 심리 통제 3	.60**	.41**	.87**	.58**	.78**	.69**	.46**	1												
9. 모 심리 통제 4	.46**	.34**	.54**	.80**	.62**	.51**	.39**	.63**	1											
10. 모 심리 통제	.73**	.66**	.78**	.65**	.89**	.83**	.75**	.88**	.73**	1										
11. 사회부과 1	.35**	.22**	.39**	.26**	.39**	.36**	.30**	.44**	.30**	.44**	1									
12. 사회부과 2	.19**	.28**	.29**	.25**	.32**	.23**	.33**	.33**	.25**	.36**	.45**	1								
13. 사회부과 3	.25**	.10*	.30**	.19**	.26**	.24**	.10**	.29**	.19**	.26**	.43**	.18**	1							
14. 사회부과	.34**	.27**	.43**	.31**	.43**	.37**	.33**	.47**	.33**	.48**	.83**	.77**	.66**	1						
15. 실패공포 1	.32**	.18**	.35**	.21**	.34**	.30**	.24**	.37**	.25**	.37**	.67**	.24**	.35**	.55**	1					
16. 실패공포 2	.38**	.19**	.45**	.31**	.41**	.38**	.25**	.48**	.31**	.45**	.69**	.34**	.42**	.44**	.81**	1				
17. 실패공포	.37**	.20**	.42**	.27**	.40**	.36**	.26**	.45**	.30**	.43**	.71**	.30**	.40**	.62**	.95**	.96**	1			
18. 학업지연행동 1	.29**	.13**	.30**	.17**	.28**	.26**	.14**	.29**	.17**	.27**	.42**	.06	.28**	.32**	.45**	.43**	.46**	1		
19. 학업지연행동 2	.24**	.09**	.27**	.12**	.23**	.24**	.08**	.27**	.12**	.23**	.26**	.04	.31**	.25**	.26**	.34**	.32**	.58**	1	
20. 학업지연행동	.30**	.12**	.32**	.17**	.29**	.28**	.15**	.31**	.17**	.29**	.40**	.06	.33**	.33**	.41**	.44**	.45**	.95**	.85**	1

* $p < .05$, ** $p < .01$



*** $p < .001$, 주. 모든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

그림 2. 아버지 또는 어머니 측정모형의 요인 간 상관과 요인부하량



주. 모든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 * $p < .05$, ** $p < .01$, *** $p < .001$.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그림 3. 아버지 또는 어머니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요인부하량

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학업지연행동으로 가는 직접경로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gamma = .13, p < .05$), 어머니의 심리적통제가 학업지연행동으로 가는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gamma = .08, p < .05$). 즉,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지각할수록 중학생의 학업지연행동이 증가하지만,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예측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로 가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아버지: $\gamma = .53, p < .001$, 어머니: $\gamma = .58, p < .001$) 자녀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 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발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에서 학업지연행동으로 가는 경로 또한 정적으로 유

표 3. 아버지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아버지 심리적 통제 -> 학업지연	.168	.069	.127*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학업지연	.110	.055	.201*
실패공포 -> 학업지연	.257	.076	.323**
아버지 심리적 통제 -> 실패공포	.203	.078	.123**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실패공포	.522	.044	.754***
아버지 심리적 통제 ->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1.258	.112	.526***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어머니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어머니 심리적 통제 -> 학업지연	.105	.069	.084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학업지연	.114	.057	.206*
실패공포 -> 학업지연	.270	.076	.337***
어머니 심리적 통제 -> 실패공포	.173	.079	.111*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실패공포	.523	.046	.755***
어머니 심리적 통제 ->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1.295	.104	.575***

* $p < .05$, *** $p < .001$

하게 나타나(모두 $\beta = .20$, $p < .05$),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학업지연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서 실패공포로 가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여(아버지: $\beta = .12$, $p < .01$, 어머니: $\beta = .11$, $p < .05$) 자녀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실패공포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실패공포에서 학업지연행동으로 가는 경로 또한 정적으로 유의하여(아버지: $\beta = .32$, $p < .01$, 어머니: $\beta = .33$, $p < .001$), 실패공포가 높을수록 학업지연행동을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에서 실패공포로 가는 경로 또한 두 모형에서 모두 유의하여(아버지: $\beta = .75$, $p < .001$, 어머니: $\beta = .76$, $p < .001$)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실패공포를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이하 SMC)은 한 내생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에 의해 그 내생변수가 설명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산출된 SMC에 따르면, 두 모형 각각에서 실패공포는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에 의해 34%,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에 의해 68% 설명되었으며, 그 외에는 거의 유사하였

다. 즉,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의해 각각 28%, 33% 설명되었으며, 학업지연행동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실패공포에 의해 각각 34%, 33%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연구모형 내 변인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분해한 결과를 표 5와 6에 제시하였다. 먼저 아버지 연구모형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에서 학업지연행동으로의 직접

경로가 유의하긴 했지만, 직접효과(.127, $p < .05$) 보다는 간접효과(.274, $p < .001$)가 더 크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실패공포에 미치는 효과 역시 직접효과(.123, $p < .01$) 보다는 간접효과(.397, $p < .001$)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244, $p < .001$)도 직접효과(.201, $p < .05$)보다 다소 크게 나타났다.

어머니 연구모형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다. 어머니 심리적 통제와 학업지연행동 간 경로는 간접효과(.302, $p < .001$)만이 유의하였으며, 심리적 통제에서 실패공포로의 간접효과(.434, $p < .001$)가 직접효과(.111, $p < .05$)보다 훨씬

표 5. 아버지 연구모형의 변인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아버지 심리적 통제 → 학업지연행동	.401***	.127*	.274***
아버지 심리적 통제 →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526***	.526***	-
아버지 심리적 통제 → 실패공포	.520***	.123**	.397***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실패공포	.754***	.754***	-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학업지연행동	.445***	.201*	.244**
실패공포 → 학업지연행동	.323***	.323***	-

* $p < .05$, *** $p < .001$

표 6. 어머니 연구모형의 변인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어머니 심리적 통제 → 학업지연행동	.386***	.084	.302***
어머니 심리적 통제 →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575***	.575***	-
어머니 심리적 통제 → 실패공포	.545***	.111*	.434***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실패공포	.755***	.755***	-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학업지연행동	.460***	.206*	.254***
실패공포 → 학업지연행동	.337***	.337***	-

* $p < .05$, *** $p < .001$

싯 컸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으로 가는 간접효과(.254, $p < .001$) 역시 직접효과(.206, $p < .05$)보다 다소 크게 나타났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델타 방법(Sobel, 1982)을 적용한 결과,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학업지연행동 간의 경로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실패공포 둘 모두의 단순매개효과¹⁾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아버지: $Z=1.969$, $p < .05$, $Z=2.062$, $p < .05$, 어머니: $Z=1.975$, $p < .05$, $Z=1.864$, $p < .05$). 또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실패공포의 이중매개효과²⁾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아버지: $Z=3.124$, $p < .001$, 어머니: $Z=3.272$, $p < .001$).

논 의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실패공포가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행해졌다. 먼저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선행연구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변인들 간에 전반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실패

공포, 학업지연행동 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실패공포, 학업지연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 모형을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서 학업지연행동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 자녀의 학업지연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였던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이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대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나 실패공포 등 매개변인을 통해서만 자녀의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는 덜 친밀하며 힘의 차이 역시 커서, 친밀하고 상호적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와는 달리 아버지에 의한 심리적 통제는 다른 긍정적인 관계적 경험에 의해 완충되지 않은 채 훨씬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ogers et al., 2003). 즉, 다른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 경험으로 인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오히려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이러한 관계적 맥락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녀의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백승순, 2014), 반발심을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했을 때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에서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로부터 처벌받을 가능성이 훨씬 크므로, 자녀는 소극적으로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반발심을 학업지연행동을 통해 더 많이 표현하게 될 것이다(Burka & Yuen, 1983).

부모의 양육행동이 갖는 이러한 차별적 효

$$1) Z = \frac{ab}{\sqrt{b^2 S_a^2 + a^2 S_b^2}}$$

$$2) Z = \frac{abc}{\sqrt{a^2 b^2 S_c^2 + a^2 c^2 S_b^2 + b^2 c^2 S_a^2}}$$

과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자기효능감 또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완전매개해서 자녀의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이처럼 간접적으로뿐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학업지연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황임숙, 장성숙, 2010). 또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과도하게 통제적인 양육방식 중 아버지의 양육방식만이 지연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가진다고 보고한 서지은(2012)의 초등학교 대상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한편,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이 13-15세 딸의 지연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했던 반면,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은 자기가치감을 통해서만 지연행동을 예측했던 Pychyl, Coplan과 Reid(2002)의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Pychyl 등(2002)은 이러한 결과를 어머니는 딸에게서 친밀성과 유대감을 장려하는 반면, 아버지는 주로 자녀의 정체성 발달과 자율성 증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지연행동에 더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각각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이는 부모가 심리적으로 통제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자녀를 교묘하게 조정하는 양육행동을 하는 경우, 자녀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발달시키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여러 선행연구들(김희영, 박성연, 2008; Abd-El-Fattah & Fakhroo, 2012; Reilly et al., 2016)을 지지하며,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 받음을 밝혔던 Damian, Stoeber, Negru와 Băban(2013)의 종단연구결과로도 뒷받침된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 모형 모두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에서 학업지연행동으로 가는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완벽주의 하위요인 중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만이 일관되게 학업지연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Flett et al, 1992; Saddler & Sack, 1993),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대학생의 일반적 지연행동을 예측하고(Chi et al., 2012),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수학 및 영어 모두에서 중학생의 학업지연행동을 예측한 연구결과(Bong et al., 2014)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이러한 관계는 권위자에 의해 부과된 지나친 기대를 내면화한 이들이 권위자에 대한 적대감과 수동적 복수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지연행동을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Milgram, Sroloff, & Rosenbaum, 1988). 그러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이러한 직접 효과보다는 실패공포를 매개한 간접 효과가 더 컸으며, 이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강한 사람이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과 완벽한 관계를 맺기 원하나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판단을 최대한 미루도록 만들기 위해 지연행동을 하게 된다는 설명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Flett, Hewitt, & Martin, 1995).

한편,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서 실패공포로 가는 경로 또한 두 모형 모두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패공포가 아동기 사회화 과정에서 발달하는 것이라고 본 성취동기 이론(McClelland, 1958; Sagar & Lavallec, 2010에서 재인용)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또한 처벌, 수치심 부과, 애정 철회, 과도한 기대 등 여러 심리적 통제 전략들이 아동에게서 실패공포를 발달시킨다는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Chapman & Zahn-Waxler, 1982; Conroy et al., 2002; Teevan & McGhee, 1972; Sagar & Lavallee, 2010). 한편 영재 중학생 연구에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학업적 심리적 통제(academic psychological control)가 자녀의 실패공포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던 것 역시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Garn & Jolly, 2015). 그러나 본 연구에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실패공포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패공포에서 학업지연행동으로 가는 경로 또한 두 연구모형 모두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실패공포가 강한 학생이 학업지연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며, 실패공포가 지연행동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수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지지하는 결과이다(Atkinson & Feather, 1996; Burka, & Yuen, 1983; Rothblum, 1990; Saddler & Buley, 1999). 또한 실패공포가 실패에 집중하게 만들어 건설적인 목표를 수립하지 못하고 자원을 잘 관리하지 못하게 만들고(Berger & Freund, 2015), 학업적 동기를 약화시켜 학교를 회피하게 만들며(Garn & Jolly, 2015), 결국 실패공포가 회피 지향적 행동, 즉 학업지연행동을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매개변인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실패공포 간의 경로가 두 모형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실패공포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실패공포는 실패로 인한 혐오적 결과를 예상할 때 경험되는

두려움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패공포 척도는 자신의 가치가 평가절하 되는 것, 사회적인 영향을 잃는 것,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들에게서 더 자주 경험되는 정서이기도 하다.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강할 경우 비합리적인 목표를 가지게 되어 성공에 대한 기대보다는 실패와 관련한 예상을 더 많이 하게 되며(Burns, 1980), 과도하게 높은 수행 기준을 세우고 성공에 집착하게 되면서(Flett et al, 1992),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게 되고(Ellis & Knaus, 1977; Beswick, Rothblum, & Mann, 1988에서 재인용), 실패로 인한 여러 부정적 결과들을 피하기 위해 동기화된다(Onwuegbuzie, 2000).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은 것이 불안민감성을 높이고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을 예측하는 완전매개효과를 보여주었던 조이슬, 강영신(2015)의 연구와 유사하며, 특히 실패공포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 사이를 완전 매개함을 보여주었던 한영숙(2011)의 연구로 뒷받침된다.

한편, 연구모형에서 나타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실패공포의 단순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즉,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나 실패공포를 증가시켜 학업지연행동을 하게 만들거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실패공포를 증가시켜서 학업지연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실패공포를 발달시키는 주된 환경적 변인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부모들

은 자녀에게 학업적 성취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자신이 꾸중과 처벌, 분노 표현, 애정 철회 등 심리적 조정에 기반한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통 인식하지 못한다(Garn & Jolly, 2015). 자녀의 학업 수행 향상을 위해 과도하게 몰입하는 한국 부모의 경우, 적절한 통제와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양육방식과 심리적 통제의 미묘한 차이를 인식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드러내고, 부모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성취 수준에 대해 애정을 철회하거나 비승인 등의 처벌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것, 부모가 지정한 기준에 맞는 결과를 보이는 경우에만 자녀에게 인정과 관심을 주며 때로는 부모의 기분에 따라 비밀관적인 승인을 하는 등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업수행에 가지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알려주도록 한다. 부모의 이러한 양육태도는 자녀로 하여금 스스로의 내재적 동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좋은 성적을 받거나 과제를 완벽하게 수행해내기 위해 애쓰게 만들며, 타인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의도치 않게 학업지연행동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모의 기대나 바람을 무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집단주의 문화에서, 부모의 지나친 성취 요구와 이를 위한 과도한 심리적 통제는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 대한 적대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수동적으로 보복하게 만들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학업지연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이해시켜야 한다(Bong et al., 2014). 한편,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학업지연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특히 아버지에 대한 부모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접 효과보다는 간접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변인이었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나 실패공포를 줄일 수 있는 중학생 대상의 개입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기준을 합리적인 사고로 대체시키고, 이상과 현실의 격차에 대한 염려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절하 등 인지적 왜곡을 확인하여 수정하는 인지행동치료가 효과적일 것이다. 중학생의 경우 완벽주의가 아직 성격적 특성으로 고착되기 이전일 뿐 아니라, 완벽주의가 유럽계 미국인 학생들에 비해 아시아계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더 많이 설명한다는 연구결과(Castro & Rice, 2003)를 볼 때에도 개입에 있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상당히 실제적이고 중요한 변인일 것이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강한 경우 부모나 다른 중요한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고 그들로부터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를 원하거나,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지연행동을 하게 되는데(임성문, 박명희, 2010; Bong et al., 2014), 이러한 외재적 동기를 스스로의 판단이나 긍정적 정서 등 내재적 동기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작업 역시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한편, 실패공포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평가 상황에서의 자신의 수행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를 수정하는 인지적 접근 뿐 아니라, 정서 인식, 정서조절 등을 포함한 정서발달 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성취압력 같은 스트레스 상

황에 대한 대처방식을 훈련시킨다면 학업지연 행동과 관련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업지연행동의 발달을 막고 보다 효과적인 학습행동을 키워주기 위해 학교 기반의 통합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교사의 이해를 높이고, 학생이 효과적으로 학습행동을 조절하고 계획할 수 있는 구체적 기술과 함께 다양한 심리사회적 역량을 강화해 주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업지연행동은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뿐 아니라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함에도(Owens & Newbegin, 1997), 선행연구 대부분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발달상 더 이른 시기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조기개입에 대한 이론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구분하여 학업지연행동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과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높은 상관($r=.89, p<.01$)을 보였기 때문에 두 변인을 하나의 모형 안에서 함께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모형 분석 시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만이 자녀의 학업지연행동을 예측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발견일 것이다. 한편, 학업지연행동에 개입하기 위해 가족 환경의 변화, 즉, 부모의 양육행동을 개선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나 실패공포 같은 개인적 변인에 특히 신경 써야 함을 보여주었다는 점도 본 연구의 의의

일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자기 보고식 질문지만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반응편향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제3자 평정도구나 사회적 바람직성을 평가하는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본 연구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 적합도의 문제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하나의 모형 안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 행동이 자녀의 행동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인 관계를 살펴볼 수는 없었다. 또한 본 연구는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 역시 살펴보지 못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성별 조합에 따라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 심리적 통제의 높은 상관과 연구모형 경로계수의 높은 유사성 등은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이는 심리적 통제 방식을 민감하게 구분지어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행동과 개인적 특성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양방향적 관계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자녀의 학업지연행동이 거꾸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가져올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후에는 종단연구를 통해 이러한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은지, 김정섭 (2015). 시간관리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업적 지연행동과 의지통제에 미치는 효과. *교사교육연구*, 54(2), 301-314.
- 김희영, 박성연 (2008).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심리적 통제가 남, 여 아동의 완벽주의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경로분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115-131.
- 마은애, 손은정 (2014).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 욕구 좌절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5), 2035-2051.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1(1), 29-43.
- 박재우 (1998). 과제의 자아 위협도와 완벽주의가 과제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승순 (2014).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지연행동의 관계: 심리적 반발심,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지은 (2012). 부모의 양육방식과 아동의 행동지연의 관계: 분노억제와 우울의 매개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희정 (2014). 중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성별간 다집단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명희, 신희수 (201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초기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학회*, 19(2), 227-253.
- 안은별, 김희화 (2016). 부모의 양육행동이 초기 청소년의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과 시간관리능력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4(1), 5-14.
- 이석화 (2008).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초등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하연, 박주희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5(3), 233-258.
- 임성문 (2006). 대학생의 만성적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 부적응도식. *한국청소년연구*, 17(2), 185-211.
- 임성문, 박명희 (2010). 위험회피 기질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만성적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27(2), 127-146.
- 임소연 (201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지현 (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 실패공포, 자기효능감이 중학생의 학업지연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이슬, 강영신 (2015).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불안민감성의 매개효과. *상담학 연구*, 16(4), 359-375.
- 최윤정 (2009). 초등학생을 위한 학업적 꾸물거림 극복 프로그램 개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추상엽 (2008). 실패공포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 회피목표지향성, 인지통제의 매개효과와 부모의 성취압력, 부모의 심리적 통

- 제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추상엽, 임성문 (2008). 실패공포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 회피목표, 인지적 의지 통제, 매개효과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모의 성취압력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 연구*, 19(4), 169-198.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영숙 (2011).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4), 277-299.
- 함경애, 송부옥, 노진숙, 천성문(2011). 남자 중학생을 위한 학업적 지연행동 극복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상담학연구*, 12(3), 861-879.
- 현지원 (2008).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아동의 자기통제 및 또래갈등지각이 또래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임숙, 장성숙 (2010).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적 지연행동: 자기효능감과 완벽주의를 매개로. *학생생활상담*, 28, 25-43.
- Abd-El-Fattah, S. M., & Fakhroo, H. A. (2012). The relationship among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s' perfectionism and self-esteem: A partial least squares path analysis. *Psychology*, 3(5), 428-439.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tkinson, J. W., & Feather, N. T. (1996). *A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Vol. 66). New York: Wiley.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on, P., & MacGillivray, R. G. (1989).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s as a function of perceived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4(1), 50-62.
- Beck, B. L., Koons, S. R., & Milgrim, D. L. (2000). Correlates and consequences of behavioral procrastination: The effect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self-consciousness, self-esteem and self-handicapping. *Journal of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15(5), 3-13.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6-246.
- Berger, S., & Freund, A. M. (2015). Fear of failure, disorganiz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ontext of preparing for an exam. *Swiss Journal of Psychology*, 71(2), 83-91.
- Beswick, G., Rothblum, E. D., & Mann, L. (1988). Psychological antecedents of student procrastination. *Australian Psychologist*, 23(2), 207-217.
- Birney, R. C., Burdick, H., & Teevan, R. C. (1969). *Fear of failure*. New York: Van Nostrand.
- Bong, M., Hwang, A., Noh, A., & Kim, S. (2014). Perfectionism and motivation of adolescents in academic contex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6(3), 711-729.

- Brown, W. J., & Cude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urka, J. B., & Yuen, L. M. (1983). *Procrastination*. MA: Addison-Wesley.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13, 34-52.
- Castro, J. R. & Rice, K. G. (2003). Perfectionism and ethnicity: Implications for depressive symptoms and self-reported academic achievement.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9(1), 64-78
- Chapman, M., & Zahn-Waxler, C. (1982). Young children's compliance and noncompliance to parental discipline in a natural set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5(1), 81-94.
- Chi, H., Zhao, R., Hou, Z., & Lin, N. (2012). Relationships between perfectionism and procrastination in undergraduate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Chines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2), 233-236.
- Conroy, D. E., Willow, J. P., & Metzler, J. N. (2002). Multidimensional fear of failure measurement: The 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4(2), 76-90.
- Damian, L. E., Stoeber, J., Negru, O., & Băban, A. (2013). On the development of perfectionism in adolescence: Perceived parental expectations predict longitudinal increases i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5(6), 688-693.
- Deci, E. L., & Ryan, R. M. (2011). Levels of analysis, regnant causes of behavior and well-being: The role of psychological needs. *Psychological Inquiry*, 22(1), 17-22.
- Elliot, A. J., & Thrash, T. M. (200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fear of failur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8), 957-971.
- Ferrari, J. R., & Olivette, M. J. (1994). Parental authority and the development of female dysfunctional procrastin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8(1), 87-100.
- Flett, G. L., Blankstein, K. R., Hewitt, P. L., & Koledin, S. (1992). Components of perfectionism and procrastination in college students.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20(2), 85-94.
- Flett, G. L., Hewitt, P. L., & Martin, T. R. (1995).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nd procrastination. In J. R. Ferrari, J. L. Johnson, & W. G. McCown (Eds.), *Procrastination and task avoidance* (pp. 113-136). New York: Plenum press.
- Flett, G. L., Hewitt, P. L. Oliver, J. M., & Macdonald, S. (2002).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rost, R. O., Marten, P. A.,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5), 449-468.
- Garn, A. C. & Jolly, J. L. (2015). A model of parental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in academically gifted students. *High Ability Studies*, 26(1), 105-116.

- Hair, J., Black, W., Babin, B. Y. A., Anderson, R., & Tatham, R.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A global perspective*.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 Hall, R. J., Snell, A. F., & Foust, M. S. (1999). Item parceling strategies in SEM: Investigating the subtle effects of unmodeled secondary construct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2(3), 233-256.
- Hamache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A Journal of Human Behavior*, 15(1), 27-33.
- Hammer, C. A., & Ferrari, J. R. (2002). Differential incidence of procrastination between blue and white-collar workers. *Current Psychology*, 21(4), 333-338.
- Hewitt, P. L., & Flett, G. L. (1991). Dimensions of perfectionism in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1), 98-101.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 1-55.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Mapes, R. R. (2008). *The socialization of fear of failure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Rochester, New York, USA.
- Milgram, N. N., Mey-Tal, G., & Levison, Y. (1998). Procrastination, generalized or specific, in college students and their par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5(2), 297-316.
- Milgram, N. A., Sroloff, B., & Rosenbaum, M. (1988). The procrastination of everyday lif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2(2), 197-212.
- Milgram, N., & Tenne, R. (2000). Personality correlates of decisional and task avoidant procrastina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4, 141-156.
- Nelson, D. A., & Crick, N. R. (2002).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mplications for childhoo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Onwuegbuzie, A. J. (2000). Academic procrastinators and perfectionistic tendencies among graduate students. *Journal of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15(5), 103-109.
- Owens, A. M., Newbegin, I. (1997). Procrastination in high school achievement: A causal structural model. *Journal of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12(4), 869-887.
- Pychyl, T. A., Coplan R. J., & Reid P. A. M. (2002). Parenting and procrastination: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 between procrastination, parenting style and self-worth in early adolesc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271-285.
- Rogers, K. N., Buchanan, C. M. & Winchell, M. E. (2003). Psychological control during early adolescence links to adjustment in differing parent/adolescent dyad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3(4), 349-383.
- Reilly, E. E., Stey, P., & Lapsley, D. K. (2016). A new look at the links between perceived parenting,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 disordered eat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8, 17-20.
- Rothblum, E. D. (1990). *Fear of failure: The psychodynamic, need achievement, fear of success, and procrastination models*. New York: Plenum Press.
- Russell, A., & Saebel, J. (1997). Mother-son, mother-daughter, father-son, father-daughter: Are they distinct relationships? *Developmental Review*, 17(2), 111-147.
- Saddler, C. D., & Sacks, L. A. (1993).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Relationships with depression in university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73(3), 863-871.
- Saddler, C. D., & Buley, J. (1999). Predictor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i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84(2), 686-688.
- Sagar, S. S., & Lavalley, D. (2010). The developmental origins of fear of failure in adolescent athletes: Examining parental practice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1(3), 177-187.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Solomon, L. J., & Rothblum, E. D. (1984). Academic procrastination: frequency and cognitive-behavioral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4), 503-509.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01).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Boston: Allyn & Bacon.
- Teevan, R. C., & McGhee, P. E. (1972). Childhood development of fear of failure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21(3), 345-348.
- Vansteenkiste, M., Zhou, M. M., Lens, W., & Soenens, B. (2005). Experiences of autonomy and control among Chinese learners: Vitalizing or immobiliz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 468-483.
- Zakeri, H., Behnaz, N. E., & RAzmjoe (2013). Parenting styles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84, 57-60.
- 원 고 접 수 일 : 2016. 01. 23.
수정 원고접수일 : 2016. 04. 10.
최종 게재결정일 : 2016. 04. 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Fear of Failure

Jieun Baek

Seung-yeo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fear of failure on the relation between paternal or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The self-report survey data of 640 middle school students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indicated in both paternal and maternal model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fear of failure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paternal or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respectively. The dual-mediating effects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fear of failure were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other words,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contributed to adolescents' academic procrastination by increasing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or fear of failure. Furthermore, youth with strong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have more fear of failure which in turn influenced their procrastination. However, two models differed in that only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directly predicted academic procrastination.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ies for academic procrastination as well as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Key words :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fear of failure, academic procrastination